

“신재생에너지·문화예술 선도 신안 도약”

올해 새해 열거

박우량 신안군수

‘자긍심 가득한 섬’ 비전 제시...7대 핵심 전략 발표 교통 인프라 확충·농어촌 활성화·햇빛·바람에너지 확대

“자긍심 가득한 섬, 자랑스러운 섬 신안을 만들겠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문화예술, 농어촌, 생태환경, 복지, 교통, 안전 등 7대 분야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하며, 군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지난해 도초도에 개관한 올라퍼 엘리아스 미술관에 이어 올해 비금도에 안토니 고펠리 미술관을 개관하고, 압해도에 그레퍼티 타운, 자은도에 박은선 조각 뮤지엄 등 30여개 뮤지엄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옥도 작약 정원과 장산도 하이



트 정원, 암석정원 등 독창적인 정원

조성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강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햇빛연금을 비금도까지 확대하고, 자은도에 풍력발전 바람연금을 도입한다.

햇빛아동수당도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유치하고 산업기반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비해 신안군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햇빛·바람에너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협력할 방침이다.

농어촌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팜 확대, 고소득 수산업 육성, 어선 임대사업,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등에 총력을 기울인다.

수산자원 보전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준공에도 박차를 가하며,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 및 생태 보전에도 힘쓴다.

팔금도에 인문학 공간인 Book-아일랜드를 조성하고, 흑산권역에 K-관광섬 육성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해양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 갯벌의 생태복원과 탄소 흡수 능력 자원화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령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경로당 태양광 설치, 초·중학생 글로벌 어학연수, 출산지원금 사업 등을 통해 모든 세대가 소외되지 않는 복지 정책을 실현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비금-추포, 자라-장산, 장산-신의 연도교 건설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여객선 공영제와 1004버스를 통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박 군수는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며 도전들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5년에는 군민과 함께 신안의 지력을 보여주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안=양훈기자

목포시, 정기인사 후 일주일 만에 수시인사 단행

동장·박물관장 발령 일주일 만에 변경 ‘논란’ 市 “사업 추진 위한 파견, 사전 협의 후 결정”

목포시가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 후 일주일 만에 수시인사를 단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목포시에 따르면 13일자로 5급 승진인사 1명, 근속승진 2명, 전보인사 9명, 5급 파견 2명에 대한 수시인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6일 정기인사에서 발령된 죽교동장과 자연사박물관장은 보직 일

주일 만에 각각 파견근무로 변경되는 등 잦은 인사 교체로 청사 안팎에서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시민과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 변경과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시민 A씨는 “축하 화분까지 보냈는데 일주일 만에 인사가 변경돼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시인사 단행을 놓고 목포시

의회 의원들도 강하게 반박했다.

목포시의회 B의원은 “박홍률 목포시장 취임 이후 인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며 특정 인물 우대와 측근 행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덧붙였다.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정기인사 때 뭐하고 다시 승진인사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목포가 고려시대 도읍지도 아니고 고려정자

발굴지도 아닌데 학예연구관이 왜 2명이나 필요한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대학교 글로벌 대학 관련 사업과 미식박람회 추진에 따른 수시인사 요인이 발생해 전남도와 협의 후 파견 근무자를 선정했다”며 “지난 정기인사 때 관련 동장과 자연사박물관장 발령자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파견근무가 기피 인사라 최근 승진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협의 후 인사를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목포=정혜선기자



목재 시설로 전면 교체된 해리신금영어린이공원 전경.

(해남군 제공)

해남 어린이놀이터, 친환경 목재로 새단장

탄소중립 실현...올해 오일시장 어린이공원 조성도

해남군은 12일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목재화 리모델링을 추진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각 어린이공원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테마를 부여해 특색있는 놀이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면서도 재미가 가득한 놀이터로 어린이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이기도 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지난 2023년 서림공원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해리동백어린이공원과 해리신금영어린이공원이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올해는 오일시장 어린이공원이 조성된다.

사업은 기존의 플라스틱 소재 놀이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친환경 소재인 목재로 만들어진 놀이시설로 전면 교체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게 된다. 놀이시설과 함께 탄성 바닥재와 주변 환경도 개선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흥미로워 할 만한 테마로 해리동백어린이공원은 공룡, 해리신금영어린이공원은 숲정원 테마로 조성됐으며, 올해 작공할 오일시장

어린이공원은 ‘캠핑그라운드’ 테마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조성공사를 마친 해리신금영어린이공원은 친환경 목재를 이용한 집라인, 스윙그네, 모래 놀이시설, 인디언 놀이집, 네트 오르기 등의 놀이시설이 설치됐다. 또한 기존 그늘목과 함께 수목 및 지피 초화류가 추가 식재돼 계절이 바뀌 때마다 자연 속 숲 놀이·휴식 공간으로 아이들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도록 했다.

해남군의 이번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은 ‘파리 15분 도시정책’에서 착안해 해남읍 어디에서든 10분 안에 갈 수 있는 ‘해남 10분 어린이공원’을 조성, 아동 친화 도시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해남읍 어린이놀이시설 리모델링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해남 10분 어린이공원’ 그린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어린이공원마다 해남의 아이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공간 제공하고자 한다”며 “친환경 목재 소재를 활용한 놀이터 조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남=박필용기자



무안군 자원봉사센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생필품과 간식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제주항공 유가족 위로 손길 지속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모든 희생자가 가족의 품에 무사히 돌아갔지만, 무안군으로 향하는 자원봉사자의 나눔 손길은 지속되고 있다.

12일 무안군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 세계선복음교회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매식 300인분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50대 아주머니는 광주에서 휴가 나온 아들과 같이 오뎅국 3백스를 이룬 오전부터 가져와 나눠주며 훈훈함을 더하기도 했다.

무안기독교연합회 산하 교회 목사 등 성도들은 일주일간 아침부터 자정

까지 생필품, 간식 등 물품 지원을 하고 유가족을 따뜻하게 위로했다.

또한 무안군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 신청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고 수습 지원, 환경 정비, 교통 정리 등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약사회 자원봉사약국과 대한한 의사협회 회의진료실은 현장 운영되며 유가족과 사고 수습 대원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무안군은 유가족이 머물렀던 재건구호센터를 재정비하고 대합실 등 공항내 시설 방역과 환경 정비를 하며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유가족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유가족들의 아픔을 덜 수 있었다”며 “마지막까지 유가족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설맞이 ‘나주물’ 20% 할인

6만원 이상 구매시 혜택
1인당 최대 20만원 적용

나주시는 12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나주물’에서 설맞이 할인 기획전 등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나주물에서 나주배, 쌀, 한라봉, 홍어, 한우 등 농특산물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6만원 이상 구매 시 총금액의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혜택은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4만원 할인) 적용된다.

특히 나주시장이 맛과 품질을 보증하는 ‘천년이음 나주배’는 품위와 당도선별은 물론 성장촉진제 사용 없이 배 본연의 맛을 살린 고품질 나주배로 입소문을 타

면서 명절 선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나주시는 나주물 이용 고객 편의와 유통채널 다각화를 위해 설명절 기획전에 맞춰 모바일 앱(App)을 지난 6일부터 신규 오픈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상반기엔 나주시사랑상품권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주물에선 소비자들에게 연중 무료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 구매 금액 외 비용 부담이 없고 엄격히 선별한 고품질 농특산물을 집에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상품 가격, 택배비 부담 없는 나주물에서 이번 설명절 선물을 미리 준비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정중환기자

영암, 작년 고향사랑기부금 18억 돌파

기부금액 전년비 46% ↑ ...지정기부·민간 플랫폼 주요

영암군의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125천967건, 18억6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기부 건수는 81%, 기부 금액은 46% 증가한 실적을 달성했다.

12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2년 연속 전남 기초지자체 중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2위를 차지하며 제도 선도 지자체로 자리매김했다. 특색 있는 기업사업과 지정기부사업 발굴, 민간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이끌어가는 성과를 냈다.

특히 20년 만에 개원한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는 인근 도시로 2시간 넘게 이동해야 했던 소아청소년과 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어르신 근육 감소증 예방교실인 ‘영남이 기억상실증 회복 프로그램’과 마을 어르신 읍내 영화관 나들이 프로그램인 ‘엄니 영암 극장 가시계’ 등 기업사업은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다.

지정기부 사업도 활발히 진행됐다. ‘영암읍 안심프로젝트’와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 운영’은 목표 금액을 조기 달성했으며, 민간 플랫폼 ‘위기브’를 활용한 모금으로 지역사회의 관심을 더욱 끌었다.

영암군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에 대비해 새로운 답례품 개발, 기부자 우수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암=나동호기자

영광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5명 모집

오는 15일까지 신청

영광군은 12일 “정책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국정 및 시도·시군구 정책참여, 정책현장 모니터링, 나눔·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부, 자영업자, 공공·민간기관 근무자 및 퇴직자 등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과 국정참여에 관심이 높은 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 인원은 총 5명으로, 접수 기간

은 오는 15일까지, 지원방법은 소문24 누리집(sotonggo.kr)로그인 후 참여단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2025년 3월1일부터 2027년 2월28일(2년)까지로 참여단원은 정당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 지지 등 정치·선거활동을 할 수 없다.

최종 결과는 2월 중 소문24 및 군 대표 누리집에 공고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사회복지과(061-350-5808)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동규기자